

“촬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똥짓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쫓기면서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똥짓 같습니다.”

강동원이 평범한 소시민으로 변신한다. 다음달 14일 개봉하는 영화 ‘골든 슬럼버’에서 강동원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택배기사 건우 역을 맡았다.

착하고 성실한 건우는 모범시민으로 선정돼 유명세를 탔다가 유력 대선후보 암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다. CCTV와 지문까지 완벽히 조작된 상황에서 누명을 벗고 일단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강동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영화를 이끌고 가는 인물이 다 보니 관객이 건우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영화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화는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강동원은 7년 전 원작을 접하고 나서 영화제작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메시지도 분명하고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영화사에 얘기했다”며 “원작의 부담감보다는 소설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약간의 사명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영화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무대로 삼았다.

노동서 감독은 “원작의 흥미로운 설정은 큰 틀에서 가져왔지만 우리 현실을 반영해야 관객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거대한 시스템에서 소시민이 겪는 두려움, 누가 나를 위해 내 편이 될 수

영화 ‘골든 슬럼버’ 건우 역 강동원

모범시민에서 암살범인으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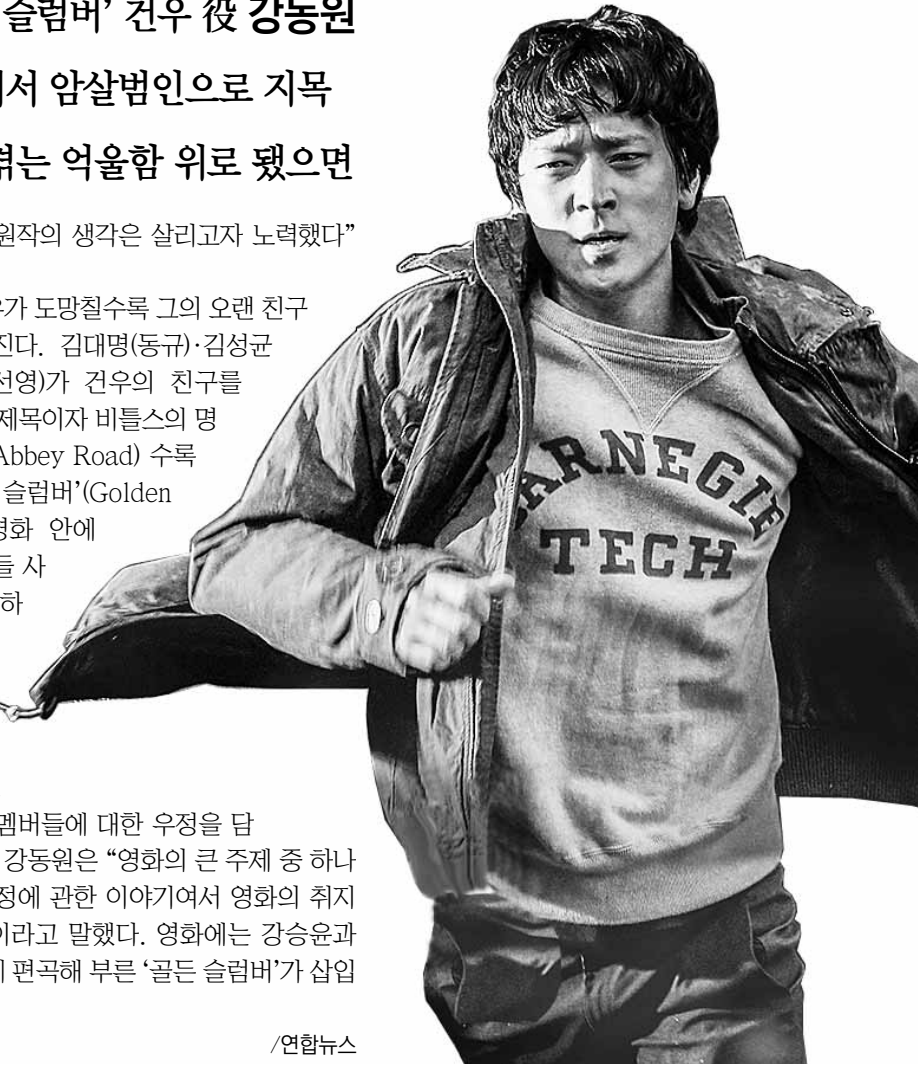
소시민이 겪는 억울함 위로 됐으면

있는지에 대한 원작의 생각은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건우가 도망칠수록 그의 오랜 친구들도 위험에 빠진다. 김대명(동규·김성균(금철)·한효주(선영)가 건우의 친구를 연기했다. 영화 제목이자 비틀스의 명반 ‘에비 로드’(Abbey Road) 수록곡인 ‘골든 슬럼버’(Golden Slumbers)는 영화 안에서 건우와 친구들 사이 우정을 상징하는 테마곡으로 쓰인다.

‘골든 슬럼버’는 폴 매카트니가 비틀스 해체를 앞두고 멤버들에 대한 우정을 담아 만든 곡이다. 강동원은 “영화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친구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여서 영화의 취지에도 맞는 곡”이라고 말했다. 영화에는 강승윤과 이하이가 새롭게 편곡해 부른 ‘골든 슬럼버’가 삽입됐다.

연합뉴스



6개월만에 천만원 만들기

EBS ‘호모…’ 오늘 방영

‘국민 통장요정’ 김생민(사진)의 노하우를 빌려 6개월 만에 1천만원을 만들어 보자.

EBS TV는 오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35분 김생민과 함께하는 6부작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방송한다고 17일 소개했다.

전반 4부는 종잣돈을 만드려는 20~30대 여성 8명, 후반 2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꿈꾸는 50~60대 남성 4명의 이야기를 담

는다.

저축이러곤 해본 적이 없는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 재테크가 뭔지도 모르고 ‘묻지마 저축’만 하는 직장인과 주부 등 참가자들은 김생민의 진심 어린 충고와 위로를 들으며 6개월을 이겨낸다.

재테크 전문가 6인방의 밀착 조언도 있다. 1~4부에는 금융기자 성선화 씨, ‘짬돌이 카페’의 대표 이대표 씨, 주부 재테크의 롤모델 김유라 씨가 함께한다.

중·노년세대를 위한 멘토로는 금융감독원의 은퇴세대 자산 상담가 유현미 씨와 자산관리 전문가 우용표 씨, 부동산 전문가 김중을 씨가 나선다.

연합뉴스

cj헬로 호남미디어국, 시사프로 ‘이슈토크’ 개편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방영

한주간의 핫이슈 등 이야기

cj헬로 호남미디어국에서 지역채널 시청자들을 위한 시사프로그램 ‘이슈토크’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슈토크’는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현재 새롭게 개편을 마치고 지난 15일 채널 25번에서 첫 방송을 했다.

개편 이후 진행에는 정수영 아나운서, 패널에는 조덕진 편집장(무등일보 아트플러스)과 김순호 변호사가 출연해 전남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코너로는 한주간의 핫이슈, 네글자토크 등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15일 선보인 첫 방송의 주제는 ‘화제의 영화 1987’, ‘순천대 정규진 전원 버티기 논란’, ‘국민의당의 통합 갈등’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호남미디어국 PD는 “요즘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트렌드로 급부상해 많은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실상 지역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아쉬움이 컸다”며 “우리 지역의 이슈는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슈토크’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할 계획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남다른 동물 사랑 보여 준 송은이 ‘하하랜드’ MC 합류

24일 첫 방영…노홍철과의 호흡 기대

개그맨 송은이(45·왼쪽)가 MBC TV 동물 예능 프로그램 ‘하하랜드’의 새 MC가 돼 노홍철과 호흡을 맞춘다.

MBC는 17일 “지난 10일 방송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한 배우 유진의 뒤를 이을 MC로 송은이가 합류한다”며 “송은이는 지난해 ‘하하랜드’의 파일럿 방송 때 패널로 참여하며 남다른 동물 사랑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새로운 MC 영입과 함께 ‘하하랜드’는 새로운 구성과 내용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들의 다양한 사연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동물들의 행동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가들과 풀이해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로는 박정운 수의사,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장이권 이화여대 교수, 조승연 작가 등이 나선다.

새로 단장한 ‘하하랜드’는 오는 24일 오후 8시 55분 첫 방송 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최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흑기사 (재)	50 로봇이 아니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5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독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55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50 팔도발상 스페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5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재)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텔레몬스터 25 에어로빅 55 하하랜드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겨울발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태닝메가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특선 엠큐멘터리 모래시계-세상 너머로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클로벌24 55 특기사(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글로벌 다큐멘터리-블루 플래닛			
10	30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리턴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55 특별기획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10 해피투게더	10 MBC 스페셜 <36,700년의 눈물>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동일의 길 <우리는 무적의 돌격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학이 아호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쿵(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시선기행 나는 건(犬)이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행태죽과 미역 사고파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동물중단철도. 투무르잠>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학이 아호(재) 16:45 덩동댕 유치원1~2(재) 17: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나!~4 19:00 사이언스타 Q <동물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알수록 신비한 남미 지질이야기 소금 사막의 비밀 유유리> 21:30 한국기행 <우리 은하외전 뽀롱까요 4부 그도록 바라던 산골> 21:50 과학 다큐 버요도 <소행성이 온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육 하지만 착한 며느리. 정 많지만 소심한 시어머니> 23:35 호모 이코노미쿠스 24:05 지식체널e 24:10 EBS 스페이츠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8일(음 12월 2일 庚戌)	
	48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 60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72년생 지나치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84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1, 62		42년생 안전하게 대파하자. 54년생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66년생 기본에 충실 한다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 나라. 78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90년생 통상적으로만 임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4, 82
	49년생 이전의 국량과 견주어 봤을 때 한결 갈아서 차이가 없다. 61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이 보인다. 73년생 원인 불명의 돌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라. 85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52		43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크다. 55년생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67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79년생 실계전에서만 노닐던 물고기가 큰물을 만났으니 즐겨우리라. 91년생 불협화음이 예상되나 길사로 전환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39
	50년생 마음속으로 그처럼 갈구하여 왔던 기회가 왔으니 강력히 추진하라. 62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4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 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86년생 절치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7, 56		44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56년생 쉽게 해결될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68년생 자신이 계획하여 왔던 것에 비춰 봤을 때 거의 완벽한 형태이다. 80년생 만류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51, 70
	51년생 순간의 현상이니 의연히 대처하자. 63년생 여러 사람들의 체면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난감할 수다. 75년생 누적된 모순이 보인다. 87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81		45년생 결코 형식에 얽매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실질적이어야 한다. 57년생 앞뒤를 잘 가리어서 뛰어든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81년생 상식에 근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1, 44
	52년생 사소한 것으로 의견을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면서 양자외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64년생 합치고 보자. 76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88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행운의 숫자 : 85, 55		46년생 규칙적이려면 신뢰감을 준다. 58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70년생 당해 사황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82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5, 29
	53년생 같이 있다가 엉겁결에 터벌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날이다. 6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7년생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89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95		47년생 즐겁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9년생 실용적인 여건을 조성하자. 71년생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83년생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0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